

태권도 AI 콘텐츠·발전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타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 무주서 열려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타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무주 태권도원 나래홀에서 개최됐다.

‘태권도 가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들의 지속 가능한 융합 패러다임 연구 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 세계 213개국 태권도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대한체육회, 국제심판 및 해외 태권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5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성악, 스포츠댄스, 탭댄스,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세계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개교 등 태권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태권도의 미래 동력이 될 AI 콘텐츠 개발의 계기가 되고 태권도의 가치 혁신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콘퍼런스 첫날인 5일에는 AI 기술과 태권도 경기·교육 혁신, ΔAR 기반 AI 태권도 개발, ΔAI를 활용한 스포츠 통계와 심판 판정 등에 관한 주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타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무주 태권도원 나래홀에서 개최됐다.

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Δ올림픽과 태권도 AI, ΔAI와 인간 가치의 균형, ΔAI 기반 경기 판정 혁신 등 첨단 기술 융합 사례가 집중 조망돼 관심을 모았다.

6일에는 Δ태권도 AI개발의 수용 범위에 대한 고찰, ΔAI 기반 태권도 겨투기 판정 모델, ΔAI를 활용한 태권도 의적 확장 서비스 개발에 대한 실무적 비즈니스 논의가 진행됐다.

세계태권도연맹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태권도 AI 콘텐츠 개발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태권도 산업 및 정책 개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 무주서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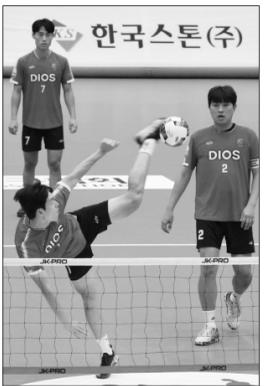
대한민국 족구 최강 실업팀 가리는 국내 최고 권위 리그

대한민국 족구대회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5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가 지난 5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주말(토·일) 총 8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리그전은 대한민국족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이킴스포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등이 후원한다.

남자 9팀, 여자 4팀 등 총 13개 팀이 참가(1일 4백여 명, 연인원 6천4백여 명)해 국내 족구 실업팀의 최강자를 가릴 예정이다. 일부 경기는 KBS N Sport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족구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 강군 무주군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



석 무주군의외장 의장, 이대재 대한민국

족구협회 회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 등 내빈과 선수 및 대회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성황을 이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대회가 족구의 세계화를 향한 의미 있는 도약의 기회를 바란다”라며 “태권도 성지이자 K-스포츠 중심지 무주가 이번 대회를 통해 족구 친화 도시로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군과 대한민국족구협회가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이대재 대한민국족구협회 회장과 흥기용 회회장에 게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군민 증서가 수여됐다. 이들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지난 4일 라오스 비엔티안 노동사회복지부 청사에서 라오스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맞손’

진안군, 라오스와 농업인력 안정적 공급 위해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 군은 지난 4일 라오스 비엔티안 노동사회복지부 청사에서 라오스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준성 군수를 비롯해 진안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국장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진안군은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농작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인력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라오스와의 협약을 준비해왔다.

특히 라오스는 전북자치도 내 여러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국가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다.

또한 라오스 근로자는 체구가 작고 손재주가 뛰어나 수박·고추·엽채류 등 진안군 주요 농작물의 정밀 작업에 강점을 보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진안군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사전 적응 교육을 통해 한국 농촌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안군은 선발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22년 필리핀 이사벨라주, 2023년 필리핀 퀴리노주·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 차례로 협약을 맺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156명, 2023년 300명, 2024년 588명, 2025년 상반기에는 729명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도입해 진안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순한 일손 부족 해소를 넘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진안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권역별 공동숙소를 제공하고, 매달 전문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 문화 적응을 돕고 있다. 또한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와 근로자 간 상호 신뢰를 높이고 있다.

전준성 군수는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직접 현지를 방문해 송출 기관과 예비 근로자들을 만나고, 교육 현장을 확인하니 더욱 관심이 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공원공단 주대영 이사장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주대영 이사장이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대영 이사장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탐방객과 직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상특보 발표,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탐방로 및 야영장 등을 통제하

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길선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덕유산 일대에 약 180~2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급경사지 및 탐방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에게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올해 토양검정숙련도 평가결과 ‘우수’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전국 9개 도농업기술원과 156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한 2개의 미지시료에 대해 농촌진흥청 고시 방법에 따라 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 유효인산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결과값을 제출하면

설정값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평가는 토양분석기관의 분석 정확도 향상과 숙련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되며, 각 기관의 분석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토양검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토양 상태가 급감한 농업인은 토양 시료 500g 이상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분석 및 비료사용처방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용담댐, K-Water ‘뎀 로컬브랜드 공모’ 선정

진안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한 ‘뎀 로컬브랜드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 활력 제고에 청신호를 켰다.

이번 공모는 지역(로컬) 고유 자원과 뎀 주변지역의 수변 공간을 결합하여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안군은 11개 지자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진안군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전라과 민간기업, 지역주민의 참여 계획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진안군을 비롯해 안동시, 양구군 총 3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뎀밸류 마스터플랜 수립비 등 2억원이 지원된다.

진안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2026년까지 로컬브랜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2027년부터는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작은도서관, 7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군민들에게 문화 및 독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장수군 작은도서관이 7월을 맞아 군 독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이 책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7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수군 작은도서관은 장수, 산서, 반암, 천천, 계남, 계북 모두 6곳이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이들 도서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매달 다양한 주제로 이동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독서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7월 둘째 주에는 △ ‘책 읽는 힘: 매일의 독서습관 만들기’ (산서) △ ‘책 읽는 장마 요정’ (산서) △ ‘생각이 자라는 꿈나무 놀이터’ (반암) △ ‘책향기 ~ 나무향기’ (천천) △ ‘그림책과 함께하는 세리미’ (계남)의 전시 만들기(계북) △ ‘남남! 꼭꼭 맛있는 그림책’ (계북) 등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읍 ‘아이조아 축제’ 내달 8일 최종 확정

장수읍 장수읍에서 추진 중인 ‘아이조아 축제’가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장수읍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축제 개최일을 오는 8월 8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군 장수읍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축제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축제 준비 계획과 추진 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급박하게 결정된 일정에 따라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홍보 전략, 안전 대책 등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속한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이조아 축제’는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소규모 문화축제로 장수읍이 주관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행사다. 축제 당일에는 체험 부스, 공연, 놀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꾸러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전북자치도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진안군은 7월부터 전북 최초로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안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수정 지원금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지원으로 상향하며 체외수정 동결 배이는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신선배이의 경우 최대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해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시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안군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군에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특히 돌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기타 세부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장수군 물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 중인 저수조는 시공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신고 의무화 조치는 수도를 위



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고관호 기자